

Daily Auto Check

2022. 2. 16 (Wed)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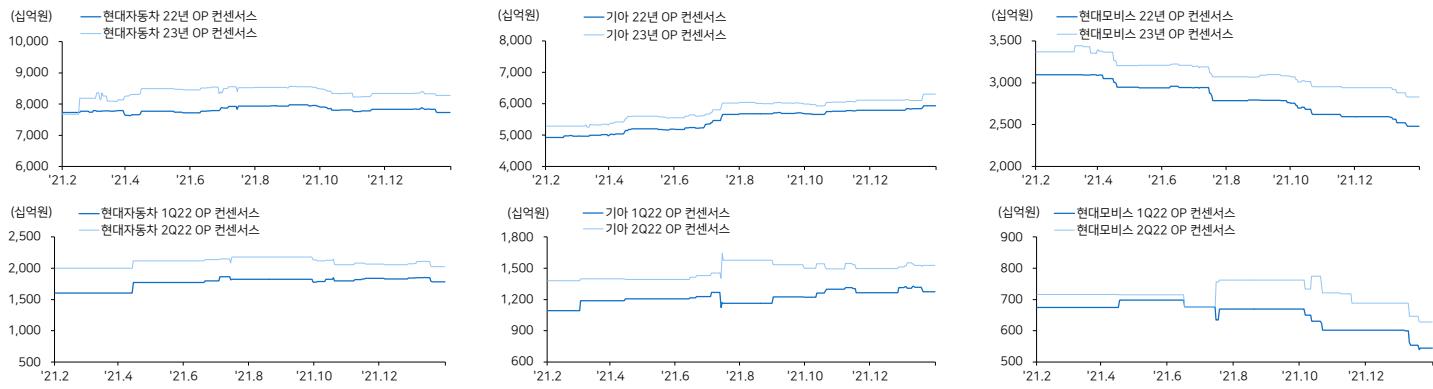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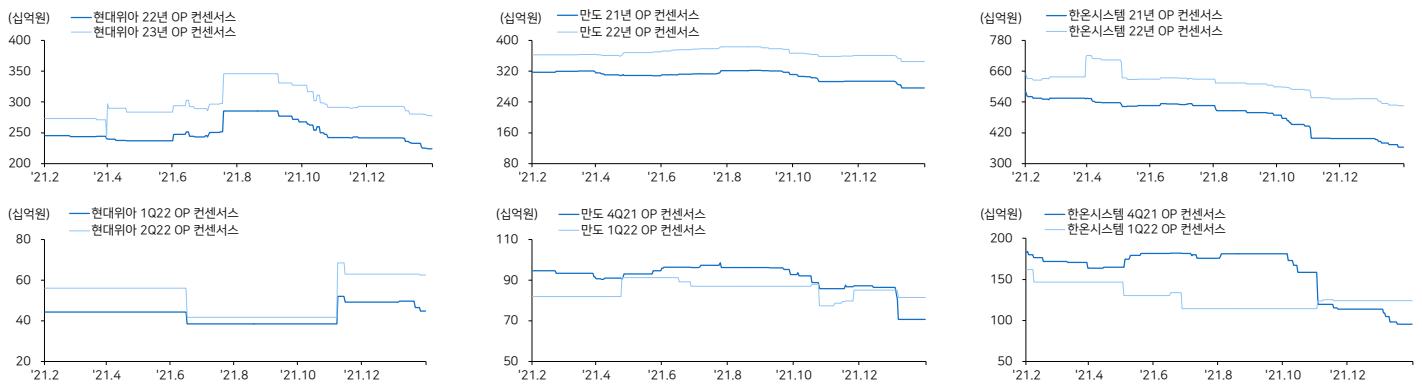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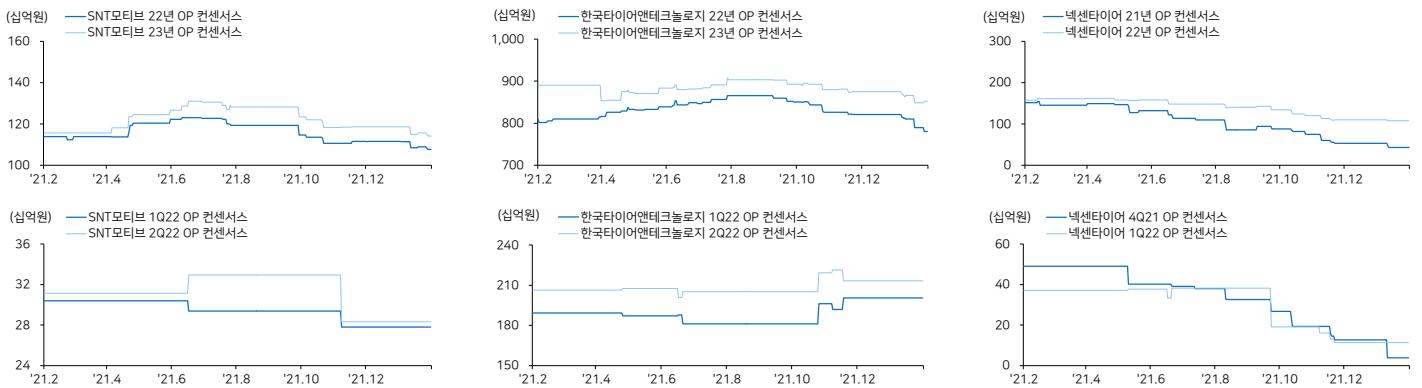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일상 된 '마이너스 옵션' 신차…들어 도요타·포드·현대차 공장 멈춰 (한국경제)

토요타는 내달 일본 미야타, 이와테 공장 가동을 중지할 계획. 앞서 포드자동차도 지난주 북미 8개 공장 가동을 중지·단축함. 현대차 역시 1월 이틀간 엘리바마 공장 가동을 중단함.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https://bit.ly/3sIZvxF>

美 보호무역 본격화 되는데… 현대차, 투자계획 차질 없다 (아시아투데이)

미국 노조 생산 전기차 인센티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예산안 배분 등으로 인해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기업의 전기차가 현대차에 비해 우위를 갖게 됐다는 진단 가운데, 현대차는 여전히 현지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

<https://bit.ly/3oNysLW>

GM extends EV Bolt production halt but plans to soon resume sales (Reuters)

GM은 리콜에 따른 Bolt EV 생산 중단을 4월 10일까지 연장, 4월 4일부터 생산 재개할 계획이며, 이후 생산된 차량을 딜러가 받는 즉시 곧 소매판매 재개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리콜된 차량은 배터리 모듈 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https://reut.rs/3jwybJl>

Lithium supply crunch Part II – this time it's for real (Mining.com)

리튬 생산 벌류체인의 전반적 가격 급상승으로 이루어진 리튬 공급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Reuters 칼럼니스트 Andy Home의 의견. 현재 새로운 리튬 광산 프로젝트는 차질 또는 연기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 EV로의 전환이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

<https://bit.ly/3oQH2OF>

러시아-우크라 전면전 벌이면 韓 타격 1순위는 자동차…러 수출 44% 차지 (아주경제)

'21년 한국의 러시아항 자동차와 부품 수출 총액은 전체의 44%를 차지. 러시아-우크라 충돌이 부품 수급 차질부터 러시아 시장의 자동차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21년 현대차/기아의 러시아 현지 판매량은 약 38만대 수준.

<https://bit.ly/3sQ4Bse>

현대차 너무 잘나가나? 美 당국 견제 시작했다 (아주경제)

최근 미국 NHTSA는 지난 '20년 11월 종결된 세타2 엔진 관련 건을 확대·재수사키로 한 건에 대해, 현대차의 미국 입지가 높아지자 미국에서 교통국을 동원하여 리콜을 강화하는 등 견제가 심화된 것이라는 미국 법조계의 해석.

<https://bit.ly/3v0HDkW>

EV startups hunt for an edge as big automakers roll out vans and trucks (Reuters)

글로벌 전기 밴 시장이 기존 스타트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레거시 OEM 업체들이 전기 밴 또는 트럭 대량 생산을 준비하면서, 이 산업에 진입된 스타트업들이 레거시 OEM 대비 경쟁력 또는 기술 우위를 위해 대비 중.

<https://reut.rs/3rPAZex>

Thailand approves incentives to promote EV shift (Reuters)

지난 화요일 태국 정부는 EV 전환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밝힘. 첫 2년간 수입 모델과 현지 생산 모델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지원은 태국산 EV 지원에 초점을 맞춤.

<https://reut.rs/3LFDyb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